



라면 같은 것

이화중 3-3 이예승

‘불닭볶음면, 신라면, 열라면 같은 게 좋은데. 재 때문에 진순이 됐잖아.’

오늘도 이예솔이 고른 것은 ‘진라면 순한 맛’이었다. 라면은 매운맛이 진리인데, 이 녀석 때문에 그러지 못하게 되었다.

“난 매운 건 도저히 못 먹어. 언니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매운 라면을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이기적이니 서운하다느니 온갖 소리를 다 해대니 우리 가족은 어쩔 수 없이 ‘사리곰탕면, 짜파게티’ 같은 것을 주로 먹었다.

‘이예솔’. 내 하나뿐인 여동생이다.

5살의 나이 터울이 있지만 그럼에도 매일매일 싸운다. 대충 먹는 라면 하나 가지고도 이리 싸우는데, 평소에는 어떻게든가. 오죽하면 학교에서 ‘동생이란 어떤 존재입니까?’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라면 같은 거’라고 하였겠는가. 동생이 라면이라니, 칼국수나 잔치국수도 아닌 라면이라니. 고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예솔’과 ‘라면’은 정말 비슷했다. 빠른 시간 내에 대충 먹을 수 있는 편안함, 언제 먹어도 같은 맛에 익숙함, 또 ‘이예솔’에 다는 리본이나, ‘라면’에 넣는 김치나 꾸며준다는 점에서 같은 의

미일지도 모른다.

내가 절대 라면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라면이 주는 투박함과 단순함은 한시라도 닿아 있을 수 없는, 별것 아닌 일에 시비를 거는 ‘이예솔’에 대한 나의 감정을 어렴풋이 나타내기에 아주 적합한 요소들이었다. 이예솔과의 갈등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기에 그다지 큰 문제 없이 여러 나날이 흘렀다. 그런데 그 나날들 중 절대로 잊지 못할 일이 있었다.

오랜만에 학교가 일찍 끝나는 수요일이었다. 막 시험 기간도 끝난 참이어서 엄마랑 점심도 먹고 옷도 사고 기분 좋게 보낸 날이었다. 마침 이예솔이 피아노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5시여서 엄마랑 이예솔을 데리러 피아노 학원 앞으로 마중을 나갔다.

“저거 예솔이 아니니?”

곧이어 피아노 학원 건물에서 나오는 이예솔의 모습이 보였고 머지않아 이예솔도 우리를 보고는 달려왔다. 그러나 훈훈한 순간이 오래가지 못해 깨지고 나는 소리를 질렀다.

“멈추라고, 뒤로 다시 가라고!”

반갑게 달려오는 이예솔의 옆으로 멈출 생각 없어 보이는 소형 트럭이 달려오고 있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트럭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그제야 트럭을 본 이예솔은 정말 아슬아슬하게 트럭을 피할 수 있었다.

온몸에 힘이 다 풀려버린 나였지만 위험한 행동을 한 이예솔에게 화를 내지 않을 수 없었다. 왜 달려온 것이냐고, 왜 기다리지 못 했냐고, 왜 이런 행동을 해서 사람을 놀라게 하냐고, 그저 걱정했다, 괜찮냐, 조심해라 말하면 될 것을 길고 크게도 뻗었다.

트럭 때문인지 나 때문인지 모를 눈물방울을 떨구며 엄마에게 안긴 이

예술을 보니 한 마디밖엔 떠오르지 않았다.

‘미안해.’

집에 들어가서도 이예술은 한참을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미안한 마음은 점점 더 부풀었다.

‘사과하면 되잖아.’, ‘하지만 재가 잘못된 일인 걸.’

천사와 악마가 공존한다는 게 무슨 느낌인지 제대로 알았다. 이러지도 못하는데, 속이 왈칵 뒤집히고, 가수 QWER의 ‘고민 중독’이란 노래 가사가 떠올랐다. 결국 저녁 식사 시간이 될 동안 사과는 하지 못하였다.

유감스럽게도 저녁 식사는 라면, 아빠가 끓인 김치라면이었다. 아빠 김치라면은 말하면서도 침이 고일만큼 정말 정말 맛있는 내 소울푸드이지만, 이예술과 그런 일이 생긴 날 이예술과 비슷하다 하였던 라면을 보니 평소처럼 아빠 김치라면도 최대로 즐길 순 없었다. 방까지 풍기는 아빠 김치라면의 경이로운 냄새는 도저히 못 이기겠는지 이예술도 거실에 나왔다.

우리는 말없이 라면을 먹었다. 그저 ‘후루룩후루룩’ 소리만 둘 사이 침묵을 채웠다. 평소처럼 이예술의 앞접시에 면과 국물을 덜어주고 김치만 골라 내 앞접시에 올려놓았다. 시중에 파는 라면과는 차원이 다른 맛. 김치의 톡 쏘는 맛과 몸엔 좋지 않겠지만 어떤 비싼 음식보다 더욱 맛있는 아빠 김치라면. 당연히 이 맛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하고도 특별한 라면의 맛일 것이다.

이예술도 그랬다. 유일무이와 특별함이 가장 잘 어울리는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 어쩌면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미안해’가 아닌 ‘고마워’, ‘사랑해’, ‘소중해’ 이런 것들이 아니었을까. 그날 라면을 먹으며 정말로 이런 생각에 빠졌었지만, 큰 반전으로 아직 사과는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마치 사과를 하고 받은 것처럼 지금 우리는 평소의 일상과 다를 것 없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미운 것이 아니라 걱정이었다는 것을, 미안한 마음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을 이예솔 네가 정말로 알았으면 좋겠다. 나에겐 네가 다 똑같은 끼니 때우기용 라면이 아닌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김치라면이라는 걸. 그것이 내가 너를 라면 같은 것이라고 한 진정한 이유라는 것을 언젠가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더 잘해줄게. 사랑한다♡

